

DDC를 위한 종교공통구분의 설계*

Suggesting a Table for Religion of DDC

오 동 근(Dong-Geun Oh)**

〈 목 차 〉

- | | |
|----------------------------------|---------------------------------|
| I. 서론 | 1. 기존 종교공통구분의 비교분석 |
| II. DDC 21판 종교류 강의 재전개 필요성 | 2.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의 제안과 기존전개의 재배치 방안 |
| III. DDC 21판 기타 종교류 전개의 특성과 문제점 | V. 결론 |
| IV. DDC를 위한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의 설계와 활용방안 |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DDC의 종교류(200)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표를 고안하기 위해, 291.1-291.9에 전개되어 있는 기존의 종교공통구분의 문제점과 DDC의 각 종교간의 세분전개상의 비동일성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기존의 다른 분류표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거나 제안된 종교공통구분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DDC를 위한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을 제안하였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이 종교공통구분을 통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DC 기독교류의 재전개방안과 함께 이 종교공통구분의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실례를 통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이 종교공통구분이 실제 자료를 분류하는 데 있어 충분한 적응력을 가지며, 기존의 분류기호를 재전개하는 데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DDC-종교공통구분, DDC-재전개, 종교공통구분, 종교류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new table for religion of DDC. It analyzes the classes in 291.1-291.9 in DDC 21 and investigates the inconsistencies and other problems in the classes included in other religions in DDC 21. Comparing with each classes in various religions in DDC 21 and other tables suggested in other classificatory systems and former research, it recommends a new table of religion for DDC with the expansions and relocations of related classes including Christianity and examines its applicability to DDC using some examples.

Key Words: DDC-Expansion, DDC-Religion, DDC-Table for Religion;

* 이 연구는 2001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odroot@kmu.ac.kr)
 • 접수일 : 2003. 5. 21 • 최초심사일 : 2003. 6. 5 • 최종심사일 : 2003. 6. 9

I. 서론

DDC는 현재 전세계 135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적 문헌분류 표이다. 우리 나라 도서관에서도 특히 대규모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양서정리의 경우 그 70% 이상이 이를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¹⁾ DDC의 이와 같은 국제적 이용을 두고 어느 학자는 이를 하나의 국제표준으로 간주하기도 한다.²⁾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DDC의 편찬자들도 미국이나 서양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를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DC의 “국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전개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의규정(options)을 도입한다거나 미국 이외의 지역의 분류전문가를 분류표의 편집에 참여시키는 등의 노력이 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DDC의 발행사인 OCLC Forest Press의 홈페이지의 기사에 따르면 2003년 7월에 발행예정인 제22판의 경우에도 종교류의 기독교 중심성을 줄이기 위한 재배치와 확장전개에 노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DDC의 미국 내지 서양 중심적인 전개를 극복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DDC라는 동일한 문헌분류표를 사용한다고 하면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그 전개방식은 상당히 다른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DDC의 종교류(200)는 10개의 강(綱) 중에서 220-280까지 7개의 강을 기독교에 배정하여, 기독교 중심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명옥⁴⁾과 변우열⁵⁾ 등의 국내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는 물론 Chan⁶⁾과 Martin,⁷⁾ Scott⁸⁾ 등과 같은 서양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비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DDC의 종교류에 설정된 임의규정조차도 한국과 같이, 다수의 종교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시

1)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KDC의 이해(대구 : 태일사, 2002), p.26.

2) A. J. Tinker et. al.,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the transition from physical to electronic knowledge organization,” *Knowledge Organization*, Vol.26, No.2(1999), p.81.

3) 2003년 7월에 발매예정인 DDC 제22판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DDC 홈페이지(www.oclc.org/fp/)와 오동근 교수 홈페이지(odroot.kmu.ac.kr) 참조.

4) 김명옥, “KDC, DDC, LCC의 기독교 문헌분류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2003, 3), pp.287-311.

5) 변우열, “종교류 문헌분류 전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2.

6) Lois Mai Chan,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organizing the world of knowledge for the world,”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Edition 21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New York : Forest Press, 1997), p.94.

7) Giles S. Martin, “The DDC in the Asia-Pacific region,”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Edition 21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New York : Forest Press, 1997), p.66.

8) Mona L. Scott,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1st edition*(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Inc., 1998), p.77.

각에서 오동근과 여지숙은 DDC의 종교류에 새로운 임의규정(Option F)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⁹⁾

이 연구는 그 후속의 연구로서, DDC의 종교류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표를 고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보조표는 종교류 전개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임의규정(Option F)의 도입시는 손쉽게 이를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의 보조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I. DDC 21판 종교류 강의 재전개 필요성

너무나도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DDC 종교류(200)의 가장 큰 문제점은 10개의 강(綱) 중에서 220-280까지 7개의 강을 기독교에 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비판에 따라, DDC의 종교류에서는 292-299에 배정된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강조하고자 할 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특정종교에 우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이 마련하고 있다(<그림 1> 참조).

<p>> 292-299 Religions other than Christianity (Option: To give preferred treatment or shorter numbers to a specific religion, use one of the following; (Option A: Class the religion in 230-280, its sources in 220, comprehensive works in 200; in that case class the Bible and Christianity in 298 (Option B: Class in 210, and add to base number 21 the numbers following the base number for the religion in 292-299, e. g., Hinduism 210, Mahabharata 219.23; in that case class philosophy and theory of religion in 200, its subdivisions 211-218 in 201-208, standard subdivisions of religion in 200.01-200.09 (Option C: Class in 291, and add to base number 291 the numbers following the base number for that religion in 292-299, e. g., Hinduism 291, Mahabharata 291.923; in that case comparative religion in 290, its subdivision 291.04 in 290.04, its subdivisions 291.1-291.9 in 290.1-290.9) (Option D: Class in 298, which is permanently unassigned) (Option E: Place first by use of a letter or other symbol, e. g., Hinduism 2H0 (preceding 220), or 29H (preceding 291 or 292); add to the base number thus derived, e. g., to 2H or to 29H, the numbers following the base number for the religion in 292-299, e. g., Shivaism 2H5.13 or 29H.513)</p>

<그림 1> 특정종교(292-299)에 우위를 부여하기 위한 DDC 종교류의 임의규정

9) Dong-Geun Oh and Ji-Sook Yeo, "Suggesting an Option for DDC Class Religion (200) for Nations in which Religious Diversity Predominates," *Knowledge Organization*, Vol.28, No.2(2001, 12), pp.75-84.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임의규정 A는 강조해야 할 대상종교는 230-280, 그 경전은 220에 분류하도록 하고, 원래 220-280에 분류되었던 기독교는 298에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의규정 B는 210에, 임의규정 C는 291에, 임의규정 D는 298에 강조하고자 하는 종교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임의규정 E는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여 강조해야 할 대상종교를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임의규정들은 E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의 종교만이 중요시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들이다.¹⁰⁾ 그러므로 어떤 특정의 국교(國敎)가 있거나 국민의 대다수가 한 종류의 종교만을 가진 국가, 따라서 한 종교의 자료가 도서관 장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아주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다수의 종교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는 이 임의규정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즉 임의규정 A나 B, C를 택할 경우에는, 동등하게 취급해야 할 종교들(예를 들면 불교, 기독교 등)이 그중 하나는 220-280이나, 210, 291에 분류되는 반면 다른 유들은 그 밖의 곳(예를 들면 임의규정 A의 경우는 290 등)에 따로 분류되게 된다. 임의규정 D를 택할 경우에는 나아가 기존의 기독교 중심성은 그대로 방치한 채 미사용기호인 298에 하나의 종교만을 분류하게 된다.(DDC 종교류 임의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Oh & Yeo 참조).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동근과 여지숙은 다음과 같이, DDC의 종교류에 새로운 임의규정(Option F)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Oh & Yeo).

임의규정 F: 220-280에 배정된 “성서 및 기독교”(the Bible and Christianity)를 220으로 축소하고, 기타 종교에 대해 우선권을 주기 위해 DDC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230-280에 이들을 분류한다. 이 경우, “성서 및 기독교”의 두 번째 자리에는 기호 “2”를 삽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성서”(the Bible)는 222,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족”(Jesus Christ and his family)은 223.2, “퓨리터니즘”(Puritanism)은 228.59와 같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를 경우, 현재 220부터 280까지 7개의 강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는 220 한 개의 강으로 축소되고, 현재 기독교의 세구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230부터 280의 각 강에는 세계의 주요종교가 배정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오동근과 여지숙이 제안한 강의 재전개방식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10) 한편 임의규정 E의 경우는 여러 종교를 대등한 수준에서 배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DDC에서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와는 다른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도록 하여, 순수기호법의 특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경우 그 배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200 Religion
210 Philosophy & Theory of Religion
220 Christianity & Ancient religion
<i>Alternative is 240, if Buddhism be placed here.</i>
222-228 Subdivisions of Christianity
229 Classical & Germanic religion
229.2 Classical (Greek & Roman) religion
229.3 Germanic religion
230 Buddhism
<i>Alternative is 220.</i>
240 Religions of Oriental origin
<i>Alternative is 230, if Christianity be placed here.</i>
241 Taoism and Religions of Chinese origin
<i>Alternative is 242, if Chondoism etc. be placed here.</i>
241.9 Other religions of Chinese origin
242 Chondoism and Religions of Korean origin
<i>Alternative is 241.</i>
242.9 Other religions of Korean origin
242.91 Dankunism
242.92 Jeungsando
242.93 Daesunjinrihoi
243 Shintoism and Religions of Japanese
244 Jainism
245 Hinduism
246 Sikhism
250 Zoroastrianism
260 Judaism
270 Islam, Babism, Bahai Faith
280 Comparative religion
290 Other religions

〈그림 2〉 오동근과 여지숙이 제안한 DDC 200의 강의 재전개방안

이와 같은 임의규정을 택하게 되면, 강의 단계에 세계의 주요종교를 균등하게 배정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목(目: section)의 단계에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세구분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DDC의 종교류(200)의 목 단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보조표를 고안하기 위한 것이다.

Ⅲ. DDC 21판 기타 종교류 전개의 특성과 문제점

DDC 제21판의 종교류의 기본골격을 살펴보면, 220-280에 기독교를 배정하고, 그 밖의 종교는 모두 292부터 299에 배정하고 있다. 아울러 292-299에 전개된 특정종교의 경우에는 294.3 Buddhism, 294.5 Hinduism, 296 Judaism, 297.1-297.8 Islam에 대해서만 상세한 전개를 하고 있다. 그 밖의 종교에 대해서는 <그림 3>과 같이 중앙엔트리(centered entry) 292-299 Religions other than Christianity 아래에 별도의 부가표(add table)를 설정하고 주기를 통하여 해당종교에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292-299 Religions other than Christianity	
Except for modifications shown under specific entries, add to each subdivision identified by ! as follows:	
01-05	Standard subdivisions
[06]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Do not use for management; class in 6 Organizations relocated to 65
07	Education, research, related topics
071	Education Class here . . .
08-09	Standard subdivisions
1-9	Specific elements Add the numbers following 291 in 291.1-291.9, e.g., organizations 65 [formerly -06]

<그림 3> 중앙엔트리 292-299 아래의 부가표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부가표의 01-09는 기본적으로 Table 1 표준세구분표를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1-9 Specific elements는 291.1-291.9에서 291 다음에 오는 기호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1-9까지의 전개표, 즉 291.1부터 291.9 Comparative religion의 세분전개항목들이 DDC 기타 종교류의 공통구분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구분이 220-280까지에 전개된 기독교에 대한 세구분은 물론 DDC상에 별도로 전개된 주요종교인 294.3 Buddhism, 294.5 Hinduism, 296 Judaism, 297.1-297.8 Islam의 전개내용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DDC 각 종교류의 세분전개 비교표

Comparative religion		Christianity (220-280)	Buddhism (294.3)	Hinduism (294.5)	Judaism (296)	Islam (297.1-8)
기호	내용					
291.1	Religious mythology, social theology, etc.	261-262	294.33	294.51	296.37-.39	297.26-.28
.2	Doctrines	230	294.342	294.52	296.31-.35	297.21-.24
.3	Public worships and other practices	263-265	294.343	294.53	296.4	297.3
.4	Religious experience, life, practice	248-249	294.344	294.542-.544	296.7	297.5
.5	Moral theology	241-243	294.35	294.548	296.36	297.56
.6	Leaders and organization	250	294.36	294.56	296.61-.67	297.6
.7	Missions and religious education	266, 268	294.37	294.57	296.68	297.7
.8	Sources	220	294.38	294.59	296.1	297.1
.9	Sects and reform movement	280	294.39	294.55	296.8	297.8

* 표에서 굵은 글자는 291.1-9와 일치하지 않는 분류기호를 나타냄.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91.1부터 291.9의 공통구분기호는 기독교의 기호(220-280)와는 어느 한 항목도 제대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독교의 강의 항목설정에 있어서도 경전(성서)(220), 기독교신학, 교의학(230), 교파(280) 등만이 일치할 뿐이며, 기독교에서 통합되어 있는 도덕신학 및 신앙생활(240)은 291.1-291.9에서는 신앙생활(291.4)과 도덕신학(윤리학)(291.5)으로 분리되어 있고, 기독교에서 교회활동 및 목회학(250)과 종교지도자(232)로 분리된 유들이 291.6에 하나의 유로 통합되어 있다. 기독교에서는 260에 하나로 묶여진 전도 및 교육, 예배 및 전례, 교회운영, 사회신학에 관한 유들은 각각 291.7과 291.3, 291.1로 분리되어 있다. 한편 기독교에 설정된 기독교 및 교회사(270)는 공통구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¹¹⁾

불교의 경우(294.3)는 도덕신학(294.35)부터 교파(294.39)까지는 항목의 설정과 순서가 공통구분과 그대로 일치한다. 다만 사회신학 등과 교리, 예배 및 전례, 신앙생활 등이 특별한 이유 없이 294.33과 294.34로 분리되어 세분하여 전개되고 있다. 한편 힌두교의 경우(294.5)는 사회신학 등(294.51)부터 예배 및 전례(294.53), 지도자 및 조직(294.56), 전도 및 종교교육(294.57)은 항목의 설정과 순서가 공통구분과 일치한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도덕신학은 294.54에 통합되어 있고, 경전(294.59)과 교파(294.55)는 전혀 다른 위치에 배정되어 있다.

유대교의 경우(296)는 더 상태가 심각하다. 즉 그 순서가 공통구분과 전혀 일치하지 않

11) DDC를 포함한 주요분류표의 기독교 문헌분류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김명옥, “KDC, DDC, LCC의 기독교 문헌분류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2003), pp.287-311. 참조.

을뿐더러, 항목설정에 있어서도 예배 및 전례(296.4), 신앙생활(296.7), 경전(296.1), 교파(296.8)만이 1단계에 설정되어 있다. 유대교의 신학, 윤리학, 사회신학 등은 296.3에 통합된 채 그 아래에 각각 세분되어 전개되고 있다.

이슬람교의 경우(297.1-8)는 예배 및 전례(297.3)와 지도자 및 조직(297.6), 전도 및 교육(297.7)의 항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교리와 사회신학 등은 297.2에, 신앙생활과 도덕신학은 297.5에 각각 통합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DDC의 종교공통구분은 기독교의 기호와는 그 설정항목과 순서가 전혀 다르며, 그나마 불교와 힌두교의 경우는 절반 정도가 일치하는 정도이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경우는 극히 일부만이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각 종교가 갖는 특성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경우는 그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270에 History of Christianity & Christian church를 설정하였을 것이고, 이슬람교의 경우는 수피교(Sufism)이나 지하드(Jihad)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각각 297.4와 297.72에 별도의 유를 설정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문헌분류가 학문분류와는 달리 문헌적 타당성 또는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를 반영해야 하고, 실제로 해당종교에서는 그와 같은 분야의 자료가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각 종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유를 설정해 주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특정종교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추가의 유를 별도로 설정해 주는 것과 각 종교마다 일관성 없이 다양한 순서로 전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것이다. 즉 DDC의 각 종교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들이 서로 다른 기호를 가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표 1>에서 제시한 것처럼, 서로 다르게 전개된 주요종교의 세분항목들은 통일된 종교공통구분을 통해 일관성 있게 재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V. DDC를 위한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의 설계와 활용방안

이상에서 지적한 것처럼, DDC의 주요 종교들의 세구분을 통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통구분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3>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DDC에는 이미 공통구분에 상당하는 부가표(add table)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표 1>에서 분석한 것처럼, 주요종교에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이 부가표를 기독교(220-280)를 포함한 DDC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교에 적용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전개항목들을 모두 재전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만일 기독교에 관한 항목을 그대로 둔 채 그 밖의 종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재분류작업을 최소화시키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중심의 도서관에서

는 어느 정도 실행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러 종교가 대등하게 공존하고 따라서 다양한 종교에 관한 자료들이 입수되고, 따라서 앞서 <그림 2>에서 제시한 다양한 종교를 대등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전개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도서관에서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DDC에 제시된 이 부가표가 왜 다른 주요종교의 전개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그 전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DDC의 291.1부터 291.9에 전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부가표의 내용을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검토하여 새로운 공통구분의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존 종교공통구분의 비교분석

각 종교를 통일적으로 세분하기 위한 공통구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이다. 또한 변우열은 모든 분류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백진식(百進式) 종교공통구분을 제시한 바 있다. Colon Classification(CC)의 경우에도 Q Religion 아래의 Property isolate에 “OZ By Property”라는 항목에서 종교공통구분을 시도하고 있다.¹²⁾ 이상의 예들을 DDC의 부가표와 비교해보면 <표 2>와 같다.¹³⁾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종교공통구분은 그 순서는 물론이려니와, 그 구성항목에 있어서도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DDC의 경우는 다른 보조표들에 비해, 종교신학 및 사회신학(291.1), 도덕신학(291.5) 등의 항목을 1단계에 설정하고 있고, 종교의 창시자를 비롯한 종교지도자와 그 조직을 통합(291.6)시키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변우열의 경우는 설교행위와 선교를 하나로 통합(-80)하고 있는 반면, 설교집(-40)과 일반종교관례(-70)를 분리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CC의 경우는 예배(45)를 종교관례(4)에 포함시키고 있고, 선교(65)를 종교단체(6)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과, 이단과 박해(8)를 1단계에서 별도의 유로 설정한 점 등이 눈에 띈다. KDC는 순서상의 차이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나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변우열(p.93)은 기존의 분류표의 공통구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1) 교리, (2) 종교창시자, (3) 경전, (4) 설교집, (5) 선교, 포교, (6) 조직, (7) (종교)의식, (8) 종교생활, (9) 교파, 종파 등이 종교공통구분의 주요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포함관계에서는 분류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와 같은 구분에 대해서도 어

12)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7th ed., (Bangalore: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1987), pp.256-257.

13) 일본십진분류표에도 종교공통구분성격의 보조표가 존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KDC와 대부분 유사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 종교공통구분의 비교표

DDC		KDC		변우열		CC	
기호	내 용	기호	내 용	기호	내 용	기호	내 용
291.1	Religious mythology, social theology, etc.					1	Mythology
.2	Doctrines	-1 -2	敎理, 敎義 宗祖, 開宗者	-10 -20	Doctrines, creeds Founder of religion	3 33	Theology Founder of religion
.3	Public worships and other practices	-7	禮拜形式, 儀式, 典禮	-60	Liturgy and ritual	45	Public worship
.4	Religious experience, life, practice	-4	信仰, 信仰錄, 信仰生活	-40 -70	Maxims, sermons Religious practice	4	Religious practice
.5	Moral theology						
.6	Leaders and organization	-6	宗團, 敎團	-50 -80	Organization, government, ministry Preaching, (missions)	5 6	Preaching, etc. Religious institution
.7	Missions and religious education	-5	布敎, 傳道活動	-80	(Preaching) Missions	65	Mission
.8	Sources	-3	宗典, 敎典	-30	Sacred books	2	Religious scriptures
.9	Sects and reform movement	-8	宗派, 敎派	-90	Denominations, sects	7 8	Religious sect Heresy and persecution

2.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의 제안과 기존전개의 재배치 방안

4.1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DDC의 종교공통구분을 재검토해 보면, 몇 가지 개선점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절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DDC에 적합한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의 안을 제시하고, 이를 DDC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DDC를 위한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의 제안

3장의 분석을 통해 DDC의 종교구분에 있어서는 주요 종교간에 항목의 설정은 물론 그 순서에 있어서 전혀 일관성과 통일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DDC의 291.1-291.9에 제시된 종교공통구분을 주요 종교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써의 종교공통구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DDC에서 -9를 기타항목의 전개에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이슬람교의 경우에는 -9를 별도의 종교에

배정하고 있다는 기호법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새로운 안에서는 -1부터 -8까지 8개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그 전개순서는 DDC의 291.1-291.9에 제시된 순서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종교공통구분과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순서로 배치토록 하고자 한다.

먼저 하나의 종교로 형성될 수 있는 철학 및 이론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일 앞에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 종교의 의지가 되는 경전 혹은 교의, 신조를 담고 있는 종전, 교전을 두었다. 이어서 종전 및 교전에서 유래된 교리, 교의를 두었으며, 이어 종전과 교리를 바탕으로 현실의 종교 및 신앙생활 관련항목을 두었다. 이어 일정한 의식을 체계화한 종교예식, 전례 관련항목을 두었고, 그 다음에는 종교의 보급 및 교육 관련항목을 두었고, 마지막으로 각 종교의 교파, 종파를 두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한 DDC를 위한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을 제안하여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DDC를 위한 새로운 종교공통구분

내 용	종교공통구분의 기호	DDC의 기존기호
Religious mythology, social theology, interreligious relations	-1	291.1
Canons, Sources	-2	291.8
Theology, Doctrines	-3	291.2
Religious experience, life and practice	-4	291.4
Public worship and other practices	-5	291.3
Leaders and religious organization	-6	291.6
Mission and religious education	-7	291.7
Sects, denominations	-8	291.8

새로 제시된 종교공통구분에서는 291.8에 있던 종전 및 교전(canons, sources)을 다른 종교공통구분의 순서를 참고하여 -2로 이동하여 위치시켰다. 교리 및 교의(theology, doctrines)는 종전 및 교전에서 유래되므로 기존의 291.2에서 한 단계 내려간 -3으로 이동시켰다. KDC와 변우열이 제시한 종조 및 개종자(founder of religion)는 DDC와 CC의 예에 따라 교리 및 교의의 하위주제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른 종교공통구분에서는 1단계에 설정하지 않았던 도덕신학(291.5)은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에서 제외시키고, -4 신앙생활(religious experience, life and practice) 아래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외의 다른 순서는 전반적으로 DDC의 291.1부터 291.9의 공통구분기호의 순서를 따르도록 하였다.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은 기독교(220-280)를 제외한 DDC의 모든 종교에 대한 분류기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종교류의 재배치 방안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은 DDC의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DDC에서는 기독교에 관한 항목들을 별도로 전개하고 있어, 현재의 분류기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기독교(220-280)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이는 오동근과 여지숙이 제시한 임의규정 F와 강의 재전개방안¹⁴⁾에 따르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오동근과 여지숙이 제안한 임의규정 F에서는 기독교 관련항목들은 두 번째 자리에 '2'를 삽입하여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기독교의 기본전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DDC 종교류(200)가 일관성 있게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새로이 제안된 종교공통구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DDC의 기독교 관련항목들의 재전개는 불가피하며, 오동근과 여지숙이 제안한 임의규정 F도 이를 반영하여 수정제안되어야 할 것이다.¹⁵⁾

이상의 내용에 따라, DDC를 위한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을 모두 적용하여 기독교 관련 분류항목들을 포함한 종교류를 재배치하여 보면, <표 4>와 같다.

<표 4>의 재배치표는 기본적으로 오동근과 여지숙의 안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기독교 관련항목을 새로 제안된 종교공통구분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다. 즉 기독교의 경우는 220은 222, 230은 223, 240은 224, 280은 228로 재전개되어 중간에 기호 "2"만을 추가한 형태가 되었고, 250은 226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260의 경우는 261-262는 221, 263-265는 225, 266-269는 227로 세분하여 재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중간에 기호 "2"를 추가하고 이전의 기호를 변경된 기호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다. 즉 250은 226, 261은 221.1, 263은 225.3, 266은 227.6으로 그 번호가 변경될 것이다. 또한 230 Buddhism부터 270 Islam, Babism, Bahai Faith까지 전개된 개별종교에 대해서도 중

14) Dong-Geun Oh and Ji-Sook Yeo, "Suggesting an Option for DDC Class Religion (200) for Nations in which Religious Diversity Predominates," *Knowledge Organization*, Vol.28, No.2(2001, 12), pp.75-84.

15) 물론 DDC의 임의규정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의 수정 내지 재전개 및 확장전개의 불가(不可)에 대한 OCLC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는 DDC 간략판 한국어판의 번역협상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규정 F에 대한 DDC 편찬자의 태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음은 임의규정 F에 대해 DDC 편찬자 J. S. Mitchell이 2003년 2월 14일자로 이 논문의 저자에게 보낸 이메일 의견이다. 'As to the publication of your special option for religion, I must inform you that OCLC owns all copyright rights in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does not generally authorized modifications to the system -- such modifications undermine interoperability of numbers, and make bibliographic records that contain modified numbers less useful to other users.'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의 도서관에서는 DDC의 부분적인 재전개와 확장이 불가피하고, 또한 그 범위도 DDC의 편찬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DDC는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의 도서관이나 편찬자가 아닌"한국의 도서관계의 요구와 필요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도서관계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공인을 받을 수 있는 "DDC의 한국관련재전개 표나 DDC 한국어판을 공식적으로 발행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위를 환기시키고 우리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교공통구분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상의 내용에 따라 수정된 임의규정 F의 새로운 안은 다음과 같다(밑줄은 수정된 부분).

임의규정 F: 220-280에 배정된 “성서 및 기독교”(the Bible and Christianity)를 220으로 축소하고, 기타 종교에 대해 우선권을 주기 위해 DDC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230-280에 이들을 분류한다. 이 경우, 220-280의 분류기호는 종교공통구분의 기호에 따라 재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성서”(the Bible)는 222,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족”(Jesus Christ and his family)은 223.2, “퓨리터니즘”(Puritanism)은 228.59와 같다.

〈표 4〉 DDC 종교류 재배치 분류항목

재전개된 분류기호 및 내용	DDC의 기존기호
220 Christianity & Ancient religion	220-280
221 Social theology and interreligious relations	261-262
222 Bible	220
223 Christian theology	230
224 Christian moral & devotional theology (life and practice)	240
225 Public worship and other practice	263-265
226 Christian leaders and organization	250
227 Mission, religious education	266-269
228 Denominations and sects of Christian church	280
229 Classical & German religion	290
230 Buddhism	294.3
240 Religions of Oriental origin	294; 299
250 Zoroastrianism	295
260 Judaism	296
270 Islam, Babism, Bahai Faith	297
280 Comparative religion	291
290 Other religions	299

3) 실례를 통한 종교공통구분 적용사례 분석

이 절에서는 <표 4>에 제시한 분류항목들과 DDC 제21판의 종교류에 설정되어 있는 항목들에 따라 실제자료들을 분류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그 유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 5>는 실제예들을 DDC 21판과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을 적용하여 분류한 예들을 통해 비교한 것이다.

〈표 5〉 DDC 21판 분류기호와 종교공통구분을 적용한 문헌의 분류기호 비교

실례(내용)	DDC21판분류기호	임의규정 F + 공통구분 적용기호
① <i>Profiting from the Word</i>	248.4	224.84
② <i>An open heart: practicing compassion in everyday life</i>	294.344	234
③ <i>Secrets of the Blue Cliff Record: Zen comments by Hakuin and Tenkei</i>	294.343	235
④ <i>Worship that is Reformed according to Scripture</i>	264.034	225.4034
⑤ <i>Global citizens: the Soka Gakkai Buddhist Movement in the world</i>	294.392	238.2
⑥ <i>Popular voices in Latin American Catholicism</i>	282.861	228.2861
⑦ <i>The New Testament: a critical introduction</i>	225.61	222.561
⑧ <i>Wisdom of the Koran</i>	297.122	272.22

① A. W. Pink의 *Profiting from the Word*(Edinburgh : Banner of Truth Trust, 1998)는 Christian life and practice에 해당하는 책으로, DDC 21판에 따를 경우 그 분류번호는 248.4가 된다. 이를 새로이 설정한 종교공통구분과 임의규정 F에 따라 분류해보면, 220 Christianity & Ancient religion 아래에서 종교공통구분 -4 Religious life and practice를 부가하면 224가 되고, 여기에 그 후속의 기호를 추가하여, 224.84가 된다.

② Bstan-'dzin-rgya-mtsho, Dalai Lama XIV의 *An open heart: practicing compassion in everyday life*(Boston ; New York ; Little Brown & Co., 2001)은 다른 종교의 예로, 역시 Religious life and practice에 해당하며, DDC 21판에 따를 경우 그 분류기호는 294.344가 된다. 이를 새로이 설정한 종교공통구분과 임의규정 F에 따라 분류해보면, 230 Buddhism 아래에서 종교공통구분의 -4 Religious life and practice를 부가하면 234가 된다.

③ *Secrets of the Blue Cliff Record: Zen comments by Hakuin and Tenkei*(Boston : Shambhala, 2000)은 Public worship and other practices에 해당하며, DDC 21판에 따를 경우 그 분류기호는 294.343이 된다. 이를 새로이 설정한 종교공통구분과 임의규정 F에 따라 분류해보면, 230 Buddhism 아래에서 종교공통구분의 -5 Public worship and other practices를 부가하면 235가 된다.

④ Hughes Oliphant Old의 *Worship that is Reformed according to Scripture*(Atlanta : John Knox Press, 1984)는 다른 종교의 예로, 역시 Public worship and other practices에 해당하며, DDC 21판에 따를 경우 그 분류기호는 264.034가 된다. 이를 새로이 설정한 종교공통구분과 임의규정 F에 따라 분류해보면, 220 Christianity & Ancient religion 아래에서 종교공통구분 -5 Public worship and other practice를 부가하면 225가 되고, 여기에 그 후속의 기호를 추가하여, 225.4034가 된다.

⑤ David Machacek & Bryan Wilson의 *Global citizens: the Soka Gakkai Buddhist*

Movement in the world(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0)은 Branches, sects, reform movement of Buddhism에 해당하며, DDC 21판에 따를 경우 그 분류기호가 294.392가 된다. 이를 새로이 설정한 종교공통구분과 임의규정 F에 따라 분류해보면, 230 Buddhism 아래에서 종교공통구분의 -8 Sects, denominations를 부가하면 238이 되고, 여기에 그 후속의 기호를 추가하여, 238.2가 된다.

⑥ Daniel H. Levine의 *Popular voices in Latin American Catholicism*(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은 다른 종교의 예로, Branches, sects of Christianity & Ancient religion에 해당하며, DDC 21판에 따를 경우 그 분류기호는 282.861이 된다. 이를 새로이 설정한 종교공통구분과 임의규정 F에 따라 분류해보면, 220 Christianity & Ancient religion 아래에서 종교공통구분의 -8 Sects, denominations를 부가하면 228이 되고, 여기에 그 후속의 기호를 추가하여, 228.2861이 된다.

⑦ Edwin D. Freed의 *The New Testament: a critical introduction*(Belmont, CA : Wadsworth/Thomson Learning, 2000)은 Canon, sources에 해당하며, DDC 21판에 따를 경우 그 분류기호는 225.61이 된다. 이를 새로이 설정한 종교공통구분과 임의규정 F에 따라 분류해보면, 220 Christianity & Ancient religion 아래에서 종교공통구분의 -2 Canons, sources를 부가하면 222가 되고, 여기에 그 후속의 기호를 추가하여, 222.561이 된다.

⑧ C. Merton Babcock의 *Wisdom of the Koran*(Mount Vernon, N.Y., Peter Pauper Press, 1966)는 다른 종교의 예로, 역시 Canon, sources에 해당하며, DDC 21판에 따를 경우 그 분류기호는 297.122가 된다. 이를 새로이 설정한 종교공통구분과 임의규정 F에 따라 분류해보면, 270 Islam, Babism, Bahai Faith 아래에서 종교공통구분의 -2 Canons, sources를 부가하면 272가 되고, 여기에 그 후속의 기호를 추가하여, 272.22가 된다.

이상의 예들을 통해 검토하고 분석한 바와 같이, 기존의 DDC의 종교류(200)는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을 사용하여 충분히 효과적으로 재전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규정 F와 새로 제안된 종교공통구분의 기호를 적용한 분류기호가 DDC 21판의 분류기호에 비해 훨씬 더 간단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을 적용함으로써 DDC 종교류의 분류기호 전체에 걸쳐 조기성을 갖게 되고, 동시에 임의규정 F를 적용함으로써 세계의 여러 종교간에 균등한 전개가 가능해짐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DDC의 종교류(200)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 표를 고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DDC 종교류의 291.1-291.9에 전개되어 있는 기존

의 종교공통구분의 문제점과 DDC의 각 종교간의 세분전개상의 비통일성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다른 분류표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거나 제안된 종교공통구분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DDC를 위한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이 종교공통구분을 통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DC 기독교류의 재전개방안과 함께 이 종교공통구분의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실례를 통한 검증과 분석에서는 이 종교공통구분과 임의규정 F는 실제자료를 분류하는데 있어 충분한 적응력을 가지며, 기존의 분류기호를 재전개하는 데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보조표는 새로이 발행되는 DDC의 개정판의 경우에도 새로운 임의규정과 함께 하나의 세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조표는 DDC 종교류 전개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임의규정 (Option F)의 도입시는 손쉽게 이를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의 보조표가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나아가 KDC나 NDC, CC 등 다른 분류표에도 확장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옥. “KDC, DDC, LCC의 기독교 문헌분류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2003, 3), pp.287-311.
- 김승환. “DDC 19판 사용에 따른 한국 및 동양관계 주제전개 연구.” 논문집(강남대), 제16권(1986), pp.599-621.
- 김연경 편역. 제21판 Dewey 십진분류법: 동양관계세분법. 서울 : 금문서적, 1997.
- 남태우. “DDC21판의 개정내용과 그 특성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1996), pp.85-104.
- 변우열. 종교류 문헌분류 전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2.
- 오동근. DDC 연구. 대구 : 태일사, 2001.
- 오동근, 여지숙.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21판 임의규정의 적용방안.” 도서관학논집, 제29집(1998), pp.313-342.
- 이재철. “한국에 있어서의 듀이십진분류법(상) : 그 역사와 전개 및 고쳐쓰기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4권, 제7호(1967, 7), pp.5-14.
- _____. “한국에 있어서의 듀이십진분류법(중) : 그 역사와 전개 및 고쳐쓰기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4권, 제8호(1967, 8), pp.18-28.

- _____. “한국에 있어서의 듀이십진분류법(하) : 그 역사와 전개 및 고쳐쓰기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4권, 제9호(1967, 9), pp.24-29.
- Bloomsberg, Marty & Hans Weber. *An introduction to classification and number building in Dewey*.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1976.
- Chan, Lois Mai.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organizing the world of knowledge for the world.”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Edition 21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Forest Press, 1997, pp.85-95.
- Chan, Lois Mai & Joan S. Mitchell ed.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Edition 21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 Forest Press, 1997.
- Chan, Lois Mai, et. a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A practical guide*. 2nd ed. New York : Forest Press, 1996.
- Dewey,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st ed. N.Y. : Forest Press, 1996.
- Martin, Giles S. “The DDC in the Asia-Pacific region.”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Edition 21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N.Y. : Forest Press, 1997.
- Mitchell, Joan S. “Options in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 the current perspectiv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19, No.3/4 (1995), pp.89-103.
- Oh, Dong-Geun and Ji-Sook Yeo. “Suggesting an Option for DDC Class Religion (200) for Nations in which Religious Diversity Predominates.” *Knowledge Organization*, Vol.28, No.2(2001, 12), pp.75-84.
- Scott, Mona 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1st edition,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Inc., 1998.
- Tinker, A. J. et. al.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the transition from physical to electronic knowledge organization.” *Knowledge Organization* Vol.26, No.2(1999), pp.80-96.